고른 비에 작물 자라듯…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장마철이다. 쉼 없이 내린 장맛비에 텃밭 작물은 아침에 열린 열매를 저녁에 따먹어도 좋을 정도로 풍성하다. 오이, 호박, 가지, 고추 등 저마다 제몫만큼 자란다.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인터뷰를 보았다. 젊은 나이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젊은 음악가는 함께 음악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서 가장 큰 배움과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나는 거기서 한국 음악의 수준을 가늠할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이 어울리며 고민을 나누고 서로 영감과 자극을 주고받는 동료의 존재, 이전 세대의 음악신동에게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19세기 파리는 모든 예술가가 선망하는 도시였다. 네덜란드인 고호와 폴란드인 쇼팽도 파리로 몰려간 것은 파리라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줄 평론가와 관객이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천재들이 열정적으로 새로운 예술을 만들면 평론가와 관객들이 환호하는 분위기는 마치 장맛비처럼 그들 모두를 쑥쑥 자라게 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 예술가도 파리로, 뉴욕으로 떠나지만 그들에겐 예술세계를 나눌 한국인 친구들이 있으니 머지않은 장래에 서울과 평창, 통영이 새로운 문화의 산실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은가.

10여년 전, 오랜만에 대학동기를 만났더니 유수한 국제광고제에 한국 광고작품을 출품하는

임윤찬 "또래 친구에게 배움과 영감"
각계 전반 평가 학연 지연이 치우쳐
좋은 인재 선발, 공정한 평가서 비롯

일을 하고 있었다. 광고주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광고작품 수준이 낮아지는데 국내에는 이를 공정하게 작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고육책으로 국제광고제에 한국 작품을 출품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해야 실력을 인정받는 음악계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 후 한국 작품이 수상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고 친구의 판단이 적실했던지 광고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한국 문화의 위상도 몰라볼 정도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 예술가들도 많고 K-pop 등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세계인들도 많아졌지만 우리 문화의 토양은 여전히 척박하다. 얼마 전 국가대표팀 축구감독을 선임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스포츠계, 예술계, 학계 등등 사회 전반의 평가 체계가 아직도 정실과 인맥에 좌우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한데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부 지방자치제에서 선정하는 고장을 대표하는 장인이나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누가 평가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문화적 역량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다. 좋은 인재를 불러 모으려면 그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는 누가 하는가? 대중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 서로의 활동과 실력, 인성 등을 지켜보았던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외부인의 평가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

임윤찬이라는 천재가 또래 천재 집단 속에서 배출된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조성된다면, 고른 비에 텃밭 작물이 자라듯 우리의 문화적 역량도 일취월장하게 될 것이다.

자유, 몸에서 시작하자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삶에서 도전을 만난 사람들의 표현이다. 건강 문제나 불편한 대인 관계에서, 학업이나 취업 앞에, 창작이나 직업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이다.

팔리어 낄레사(kilesa)는 윤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고대 번역가는 낄레사를 '번뇌(煩惱)'로 한역했다. 우리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 열반(니르바나)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한다.

번뇌란 무엇인가? 너무 익숙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가? 한글세대에게 번뇌란 무엇인가? 번뇌는 '고통스러운 감정, 파괴적인 감정, 불안한 감정, 마음의 독'이다. 이것은 세포에 저장되기 때문에 온몸으로 퍼진다. 불법(佛法)을 심리학의 언어로 서양에 소개한 핵심적인 인물인 쵸감 트룽파(1939~1987)는 번뇌를 신경증(神經症, 노이로제)으로 소개했다.

신경증은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정신이나 신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괴로운데 왜 몸도 고통스러울까? 심리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신경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신경증은 주로 불안정한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이다. 좋은 관계를 경험해야만 치료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접촉하는 대상은 엄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와 경험한 관계는 향후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된다.

부정적 감정들 몸이 모두 기억
부처님 설한 사념처 수행 해결
감정 확인해 갈길 가도록 하자

신경증의 증상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신체라는 저장고에 쌓였는지의 차이다.

문제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를 기억(sati)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대나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거나 정서적 방치 등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건은 억압되어 무의식 상태로 남게 된다. 이것은 자아의 방어 기제로 인해 의식하지 못한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자각하기가 어렵고, 이것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화를 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이제 가벼워졌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은 증식하고 반복된다. 그리고 분노 이면의 불안이나 두려운 감정은 알아차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 뽑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몸은 기억한다. 그러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사념처(四念處) 수행으로 해결해보자. 힘들고 괴로우면 먼저 ①주의를 자신의 몸에 두고 호흡을 관찰하자. 이때 ②몸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③자신도 모르게 방어하는 대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그리고 ④그 느낌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체험)하자. ⑤그 느낌을 멋진 것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려는 노력 없이, ⑥그 감정이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자. 이것이 해방 기제, 즉 해탈(자유)로 가는 원리이다.

社 說

신임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에 부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불자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7월 2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대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홍철호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불교와의 동행"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부처님 자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며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철호 회장은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로 알려졌다. 2014년 경기 김포시 보궐선거에 당선돼 의정활동에 임하면서도, 불자 기업인 봉사단체 '보현선행회'를 꾸려 나눔을 실천해 왔다. 불법의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에서 이름을 따온 '보현선행회'는 이웃돕기 1080배와 문화행사, 장학금 전달식 등 해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공명정대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불교의 가교 역할을 하며 불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당장 오는 9월 28일 불교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불교도 대법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K-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철호 신임 회장이 취임한 대통령실불자회가 불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교 현안 해결과 국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사찰음식 장인' 제도에 거는 기대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장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월 23일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장인 1급 6명과 2급 13명 등 총 19명의 스님에게 사찰음식 장인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찰음식 전문성을 인정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찰음식을 보급·계승하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사찰음식 장인은 2단계 과정을 통해 1급과 2급이 구분된다. 우선 문화사업단에서 각 급수 대상자를 경력·추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촉된다.

이에 따라 사찰음식 자격제도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장인 2급, 장인 1급, 명장 순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만당 스님은 "장인 1급·2급 스님들 가운데 명장 위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사업단이 장인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사찰음식 명장 자격제도'와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문조리사 자격 취득한 이후 명장 자격을 받기까지 간극이 너무 커 경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 장인 개설로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찰음식은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식문화이다. 기후 위기 시대, 청빈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이번 장인 제도 개설로 사찰음식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전문가들이 꾸준히 육성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3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3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3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